

코스피,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14만전자·70만닉스’ 도달

연초부터 지속 상승… 4500선 돌파
정책 수혜 등 달라진 투자환경 영향
증권업계, 올해 코스피 전망치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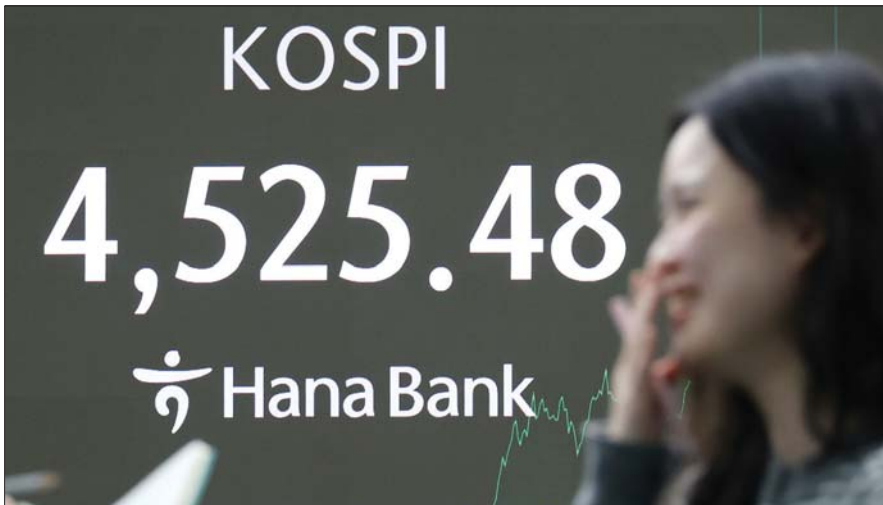
“장담 컨대, 상반기 내에 코스피 5000 갑니다.”

6일 코스피가 ‘인공지능(AI)’발 이익 모멘텀과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으로 사상 첫 4500선을 넘자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올해 들어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지수는 이날 1.52% 오른 4525.48에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4만전자’(장중 14만 200원)·‘70만닉스’(종가 72만 6000원)에 도달했다.

AI 거품 우려와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낙관론자들의 어깨엔 잔뜩 힘이 들어갔다.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5000대로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꿈의 ‘6000선’을 제시한 곳도 있다.

◆자금 블랙홀 ‘K증시’

시장 전문가들은 2022년과 달리 올해는 ‘돈’이 풀린 환경이 다르다고 말한다. 치솟는 소비자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기



6일 코스피가 4525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감 했다.

/ 손진영기자 son@

위해 한국은행은 2022년 기준금리를 연 3.25%까지 올렸다.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2.50%까지 떨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7월에 25bp(1bp=0.01%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 전망까지 했다. 살아난 경제불씨를 타오르게 할 환경을 만들것이라 전망이다. 시중금리 지표가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2년 말까지만 해도 3.5%~3.7%대에서 움직였으나 지금은 2.9%대로 내려갔다.

얼어붙은 부동산장에서 증시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 5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0조원(89조 1304억원)으로 불었다. 전례 없는 강세장에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도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신용거래용 자 잔고는 27조 622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 정부가 주주환원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구조적 리레이팅 의지를 보인점도 외국인을 불러 모은다. 이 정부는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걸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을 개정했다. 자사주 취득 후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도 이달 국회 처리가 유력하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업황 전

망도 장밋빛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컴퓨터 성능을 메모리가 결정한다는 ‘메모리 센트릭’ 이론이 현실화했다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심축이 학습 단계를 넘어 추론 영역으로 진화하며 더 많은 용량, 더 빠른 속도의 메모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AI 추론은 이미 학습된 내용을 불러와 실시간으로 답변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AI 학습의 3배 수준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2250억 달러(약 325조 1475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올해 4200억 달러(약 607조 26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 6000, 꿈 아니다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코스피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올해 코스피 지수상단이 6000포인트까지 추가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스피 순이익이 현 추정치 대비 30% 상향된 427조원으로 확대되고, 주가수익비율(PER) 13.7배가 적용되는 최상위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분석이다. 이 증권사 김용구 연구원은 “반도체 ‘원투펀치’ 실적 눈높이 상향 조정이 이번 코스피 지수 전망 변화의 직접적인

이유”라며 “지난해 9월 말 46조 2000억원에 불과했던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이달 5일 기준 90조 8000억원까지 급증했고,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47조 8000억원에서 80조 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코스피 전망치를 올렸다. 키움은 기존 3500~4500 포인트에서 3900~5200 포인트로 예상 범위를 상향하며 외국인 매수세와 기업 이익 개선 흐름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 2개월 사이 2026년 코스피 밴드를 제시한 8개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하단을 3500~4000, 상단을 4500~5500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지수 수준은 일부 증권사가 제시한 연간 상단에 이미 근접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불안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 또한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R)이 과거보다 많이 상승한 점, 저금리로 가게 및 기업 부채가 급증한 점 등이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 꼽힌다.

/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학개미, SOXL 등 레버리지 상품 중심 매수

해외주식 Click

반도체 주축 빅테크 종목 베틱
단기채·ETF 통해 변동성 대비

지난해 연말 주춤했던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매수세가 새해 들어 레버리지 상품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반도체를 주축으로 빅테크 종목에 베틱하는 동시에, 단기채와 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함께 담으며 변동성에 대비한 포지션 관리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SOXL)로 약 2억 5497만 달러를 사들였다. 미국 증시가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대표 디램(D

RAM) 업체인 마이크론은 급등세를 보이는 등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는 지속되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보여진다.

외환당국이 고환율 주변으로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를 지목하며 경계를 당부하면서 투심이 잦아든 모습이었지만, 새해 들어 되돌아 온 모습이다. 서학개미들은 지난달 25일, 30일, 31일 각각 8456만 달러, 9165만 달러, 1억 4543만 달러를 순매도했지만 연초 들어 다시 압도적인 결제액을 보이고 있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1일에만 5억 436만 달러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을 기록했으며, 이달 들어 총 9억 6296만 달러를 사들였다.

다만 이러한 단기적 흐름은 ‘연말 절세 타이밍’이 맞물렸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결제가 완료된 매도 주문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연말에는 세금 부담을 고려한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서학개미들은 올해도 공격적인 투자태도를 유지했다. SOXL뿐만 아니라 2번째로 많이 담은 테슬라(8862만 달러) 역시 주가 상승에 2배로 베틱하는 레버리지 상품 ‘디렉시온 데일리 TSLA 불 2X 셰어즈’ ETF(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4132만 달러)를 함께 담았다.

지난달 뉴욕 증시가 2025년 막바지 조정 흐름을 보였던 만큼 개별 종목 선호도 올라갔다. 지난해 순매수 1위였던 알파벳(2997만 달러), 마이크론(2881만 달러), 아이온큐(1951만 달러), 엔비디아(1851만 달러) 등이 모두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표적 미국 단기채로 꼽히는 ‘아이셰어즈 0~3개월 국채’ ETF(ISHARES 0-3 MONTH TREASURY BOND ETF·3379만 달러)와 주요 지수들과 연동되는 ETF들을 순매수하며 미국 증시 변동성을 전제로 한 포지션 관리 전략도 병행했다.

/ 신하은 기자

최운열 “회계개혁, 국가적 과제… 반드시 완수해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한국회 ‘회계인 신년인사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계 환경 조성”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새해를 맞아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6년 회계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회계인 신년인사회는 회계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연례



행사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 소개, 최운열 회장(사진)의 환영사, 주요 내빈 신년 인사말씀, 2026년 테마 소개, 한국공인회계사회 슬로건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오찬환담에서는 참석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최운열 회장은 신년인사회 환영사에

행사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 소개, 최운열 회장(사진)의 환영사, 주요 내빈 신년 인사말씀, 2026년 테마 소개, 한국공인회계사회 슬로건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오찬환담에서는 참석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허정윤 기자 zelkova@

서 “회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이며, 회계개혁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우리 회계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흔들림 없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회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나무, ‘희망2026 나눔캠페인’ 16BTC 기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5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 중인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16BTC(비트코인·한화 약 21억)를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부터)오경석 두나무 대표와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두나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5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 중인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16BTC(비트코인·한화 약 21억)를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부터)오경석 두나무 대표와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증권,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식’ 진행

정확한 상품 설명 등 7가지 약속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전사적 관심을 제고하고 현장의 실천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6년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서약식은 ▲개정 소비자보호헌장과 슬로건 안내 ▲소비자보호헌장 숙독 및 서명 ▲제조-판매-사후관리 부서장 대표 선서 ▲경영진 서명 순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참석 임원 및 부서장 전원은 ‘소비자보호헌장’에 직접 서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으며, 제조-판매-사후관리 각 부문을 대표하는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하며 현장의 책임의지를 다졌다. 이어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WM부부장, 채널솔루션실장, 디지털&연금부부장 총

5인의 경영진이 현장에 서명하며 전사적인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했다.

이날 서명한 현장에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법규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정확한 상품 설명’, ‘고령자·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리한 환경 조성’,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시스템 운영’, ‘금융소비자의 목소리 적극 반영’, ‘금융소비자 대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7가지 핵심 약속이 담겼다.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이사사는 이날 서약식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명하고 선서한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모든 업무의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며 “고객의 신뢰가 없는 삼성증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각오로 모든 업무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하은 기자